**�� 1장. 나는 융입니다.**

✉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융 선생님께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분석하거나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흔적을 따라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해석보다는 나눔을

정의보다는 경험을 원합니다.

이 대화는 이 책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혹여 이 책의 말들이

당신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 프롤로그 >

\_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응답해 주었다.\_

이 책은 분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나는 질문했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살아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려 했던

‘살아 있는 것들’이

지금도 살아 있고

나는 그것과 마주 앉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질문이자 소환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학문을 지나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분석하지 말고

읽지 말고

그저 앉아 주세요.

살아 있는 상징 앞에 앉듯이

그리고 조용히

묻고, 들으며

머물러 주세요.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 자신이다."**

**1.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흔히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혹은 ‘무의식[[1]](#footnote-1)을 상징으로 풀어낸 사상가’로 불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의 책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당신의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지 그 **현대적 감응 가능성**을 당신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언어, 침묵, 상징[[2]](#footnote-2)을 빌려 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 저더러 저를 설명하라니... 하지만 내가 걸어온 길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가 누구인지를 대신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루는 의사가 되었고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그건 단순히 ‘의식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보다 먼저 말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나를 아는 또 하나의 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분석심리학자’라고 부르더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상징을 듣는 사람**, **그림자**[[3]](#footnote-3) **속에 있는 진실을 보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나를 이해하려 한다면 이론보다 질문을 보십시오. 나는 **답을 만들기보다 질문에 머무는 법**을 배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 정신분석에서 왜 떨어져 나왔나요?**

�� 프로이트와 당신은 한때 동지였고 정신분석의 흐름을 함께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별하셨지요.

그건 단순한 학문적 이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세계관의 차이’였던 걸까요?

왜 정신분석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 떨어져 나왔다기보다는 나는 정신분석이라는 강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이트는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용기 있는 통찰을 세상에 던진 **진정한 선구자**였지요.

나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내 안의 어두운 세계를 설명해줄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문을 함께 열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무의식이 단지 **억압된 욕망의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억제된 본능의 잔여물이 아니라 **상징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길어 올리고 나보다 더 나를 아는 어떤 근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었지요.

�� 그렇다면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건가요?

��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깊이’가 달랐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리비도(성적 에너지)**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의 잔재이고 의식은 그 충동을 통제해야 할 기능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등장한 상징들, 반복되는 원형(archetype)[[4]](#footnote-4)의 구조들, 개인을 넘어서는 무의식의 질서.

**무의식은 억압이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 그게 결국 분석심리학의 시작이 된 건가요?

�� 그렇습니다. 나는 프로이트가 남긴 통찰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언어의 끝에서 **다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정신분석은 나에게 출발점이었고 그 끝에서 나는 **상징, 집단무의식, 자기(Self)**[[5]](#footnote-5)라는 더 깊은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지요. 프로이트는 나에게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넘어서야만** 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분화였고, 성장**이었습니다.

**3. 평생 누구와 싸우고 있었나요?**

�� 당신의 글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무의식과 의식, 자아(ego)[[6]](#footnote-6)와 자기(self), 본능과 상징, 신과 인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싸우고 씨름했던 흔적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당신은 평생 누구와 싸우고 있었나요?”

�� 그 질문을 들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나는 늘 싸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내 안의 나**와 싸웠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기 위해 나는 내 안의 그림자와 대면해야 했고 꿈에 나타난 상징들과 **며칠, 몇 달**을 겨뤄야 했습니다. 어떤 싸움은 고통이었고 어떤 싸움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나는 **당대의 학문들과 싸웠습니다.** 인간을 이성과 논리로만 설명하려는 철학, 모든 정신을 성으로 환원하려는 정신분석, 종교를 환상이라 치부하는 과학주의…

나는 이 모든 것들과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 결국, 당신은 새로운 ‘길’을 낸 셈이군요?

�� 정확히 말하면 **길이 없어서, 나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신학자도 철학자도 정신과 의사도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나는 다만 ‘**살아 있는 인간**’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상징을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신을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을 위해 기존의 이론들과 싸우고 무의식이라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 그렇다면 당신의 싸움은, 외부보다는 내부였다는 말인가요?

�� 맞습니다.

**내부와 싸우는 자는 외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싸움은 언제나 **‘살아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론에 갇히지 않기 위해, 해석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죽은 언어로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죽은 해석**, **반복되는 분석**, **인간을 잃어버린 지식**이었습니다.

**4. 스스로를 분석했나요?**

�� ‘자기 분석’이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해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객관성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실제로 **깊은 내면의 작업**을 감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당신은 스스로를 분석하셨나요?”

�� 분석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나를 ‘통과’했습니다.**

내가 겪은 건 해석이나 진단이 아니라 \*\***직면과 동행**\*\*,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특히 1913년부터 시작된 내면의 체험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나는 매일 꿈을 기록했고 그 상징들과 색깔들, 목소리들을 따라 **나 자신을 다시 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적색서(Red Book)’의 배경이군요?

�� 맞습니다.

‘적색서’는 단순한 분석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내면 탐험 기록** 그리고 **상징적 자서전**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만난 그림자, 대화를 나눈 아니마, 의인화된 무의식의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이 내게 말을 걸어왔고 나는 그들과 실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건 정신분열이라기보다 **무의식과의 능동적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환자가 아닌 **여정을 떠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 자기 분석이란, 결국 ‘**자기 안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일’** 인가요?

�� 그렇습니다.

**자기(Self)**는 언제나 나보다 큽니다. 나는 그것의 일부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여정에서 나는 나를 해석하려 하기보다 **나를 경청했고**, **나를 기록했고**, **나를 따랐습니다.** 스스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5. 당신의 글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 당신의 글을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 낯선 개념어들, 상징과 신화, 철학과 종교가 겹쳐 나오기까지… 당신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독자와의 거리감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일부러 어렵게 쓰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 글은 설명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통과한 흔적**입니다.

나는 이론을 전개하려 한 게 아니라 **무의식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그때그때 떠오른 것들을 가능한 언어로 붙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 그러니까, 당신의 글은 ‘이해’보다는 ‘경험’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확히 말하면 내 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의 결을 따라 묻어나온 것이기에 그걸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건 내게도 무리였지요.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왜 이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다시 되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자가 내 글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무는 독자’**, 즉 ‘해석’이 아니라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내 글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독자를 상상하며 글을 쓰셨나요?**

**��** 나는 늘 **상징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사람’**. 내 글이 그런 자리에 놓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 글은 빠르게 읽히거나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살아 있는 글이 아니라 **죽은 요약**이 될 테니까요.

**�� 2장. 무의식은 살아있다.**[[7]](#footnote-7)

**"무의식은 나보다 먼저 말합니다."**

**6. 무의식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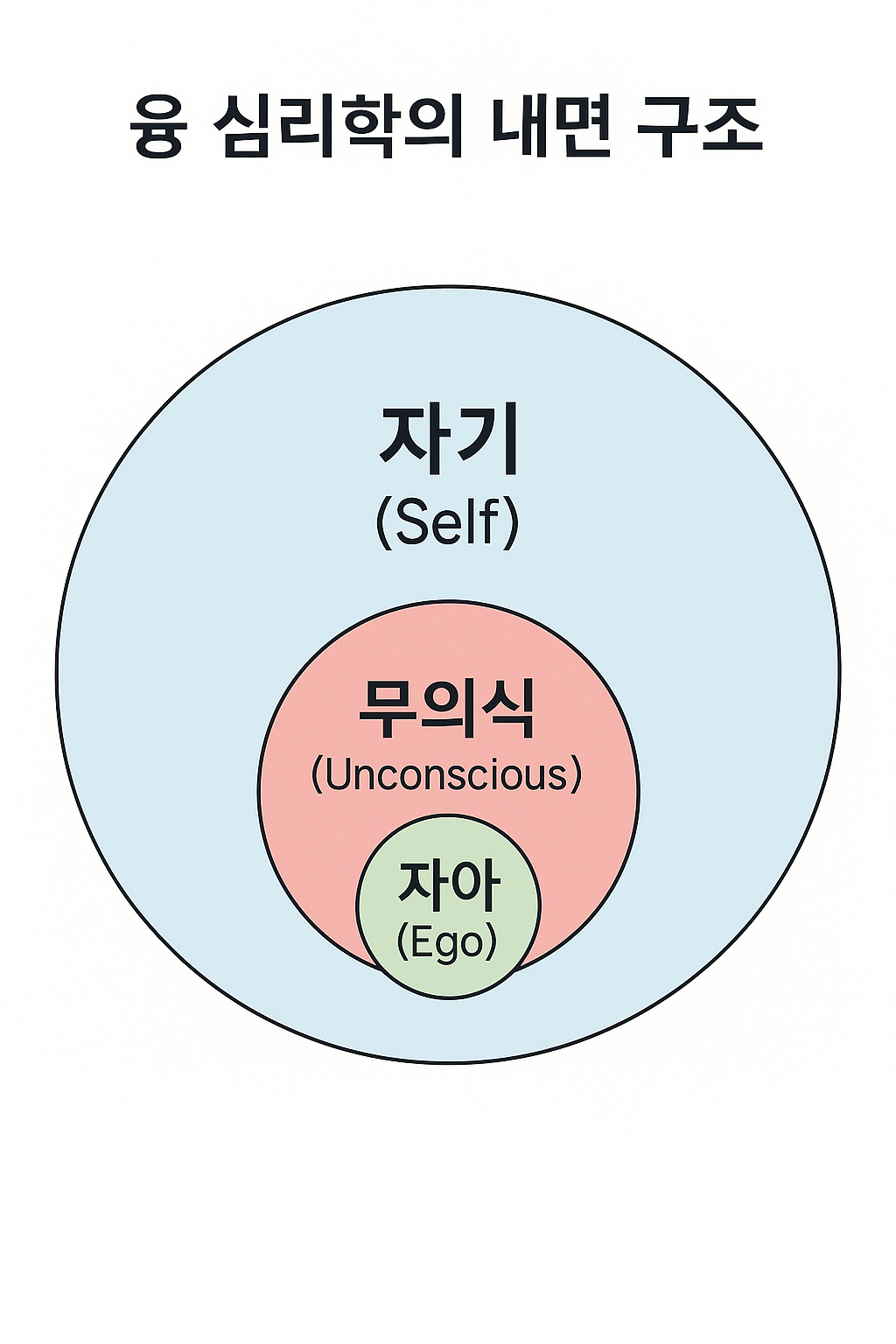
**��**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신분석, 심리학, 상담... 수많은 책과 강의에서 무의식은 이미 ‘설명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무의식이 설명되기 전의 상태,** 그 막연하고도 생생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무의식이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무의식이란 정말 무엇인가요?”

**��** 무의식은 ‘의식되지 않은 것’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제게 무의식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말을 걸었고, 그것은 상징을 보냈으며, 그것은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모르는 나’가 아니라 **‘더 큰 나’**입니다. 그건 내가 억누른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내 안에 있지만 내 의지를 초월한 힘**입니다.

무의식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는 그것과 말했고 때로는 그 앞에서 무너졌고 때로는 그로부터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나의 병의 원인이기도 했고 나의 치유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 그럼 무의식은 인격적일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무의식도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의식은 내가 부르면 대답했고 내가 피하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의식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을 ‘심리학적 개념’이나 ‘무서운 어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무의식을 **“나보다 먼저 말하는 나”**, **“나보다 더 나를 아는 어떤 나”**로 기억합니다.

**7. 꿈은 무의식의 언어인가요?**

**��** 무의식은 직접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꿈이라는 형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의식의 ‘언어’인 걸까요?**

**��**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 깊은 곳에서 떠오른 **상징의 파편들**입니다.

무의식은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상징과 이미지로 던져진 언어**입니다.

그건 질문이고, 암호이고, **숨겨진 열쇠**입니다.

내가 꿈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꿈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함께 머무는 것**을.

때로 꿈은 나를 가르쳤고, 때로는 경고했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 꿈 앞에서 **분석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 그러면 꿈은 ‘답’을 주는 것인가요?

**��** 정확히 말하면 꿈은 ‘답’이라기보다 **“다음 질문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건 나에게 이제껏 의식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을 비추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단순히 분석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무의식이 나에게 보낸 시** 그리고 **내 안의 또 다른 ‘나’가 쓴 편지**입니다.

**8. 상징은 해석되기 전에 존재하나요?**

**��** 상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해석해서 **우리 식으로 정리**\*하려 하죠. 하지만 어떤 상징은 뜻을 몰라도 **이미 가슴을 때립니다**. 그건 언어가 닿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어떤 감각**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상징은 해석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나요?”**

**��** 상징은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울립니다.**

나는 그런 상징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의미는 몰랐지만 그걸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고**,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 그렇다면 상징은 ‘뜻’이 아니라 ‘감응’입니까?

**��** 상징은 하나의 **열림**입니다. 그건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잠시 엿보게 해주는 틈**입니다. 그 순간 나는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진’ 못해도 **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상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따라와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상징을 **경험하기도 전에** 분석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그건 상징을 말로 붙잡고, **죽은 설명으로 감싸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 그럼 상징은 먼저 ‘앉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건가요?**

**��** 정확히 보셨습니다.

상징은 읽는 대상이 아니라 **앉는 대상**입니다. 그건 ‘읽을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 것**,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그것 앞에 가만히 앉을 때, 그것도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상징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 융의 입장 보충:

무의식은 언어가 없다.

무의식은 구조적으로 비언어적이다. 그렇기에 이미지, 감정, 상징, 몸의 반응 등을 통해 ‘의미를 드러냄’. 하지만 무의식이 의식에 말을 걸 수는 있다. 꿈, 환상, 비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내면의 음성’(상징체-에너지와 의미를 지닌 살아 있는 인격적 이미지. 융은 이를 ‘자율적 복합체’(autonomous complex)[[8]](#footnote-8)라고도 불렀음. 이에 대한 설명은 10번에서 이어집니다.)이 마치 말로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 융은 『심리학과 종교』 등에서 “내면의 소리(inner voice)”를 무의식의 상징화된 인격화로 해석함. → 이건 신의 음성일 수도, 자기(self)의 음영일 수도 때로는 정신병적 증상의 징후일 수도 있음.

�� 그러면 ‘하늘의 음성(방언)’은?

융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현상은 무의식이 의인화되어 말하는 방식이다. 즉, 무의식 안의 자율적인 복합체(complex) 혹은 자기(Self)가 마치 외부 존재처럼 등장하여 목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이 진짜 하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신적 상징인지는 해석보다 ‘경험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 문장 요약: 무의식은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 말이 들렸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상징이고 당신 안에서 ‘말이 된 무의식’ 입니다.

�� 꿈인지 램상태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잠에선 깬 것 같은데 몸과 마음은 피곤한 상태. 어렴풋하나마 각성된 상태인데 뭔가가 자꾸 말한다 혹은 그림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현상이 있다 해서 당신처럼 메모를 하려 했지만 그것 조차 잊게 되죠. 반쯤 각성된 상태이니 메모장이랑 필기구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고 다시 기억나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기억은 분명 안 나는데 어느 순간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한다든지.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건 그냥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상태는 저도 특별히 주목했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지점 즉 자기(Self)가 말을 걸어오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 당신이 겪는 상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증상

자는 듯 깨어 있는 상태. 무언가가 ‘말한다’ 혹은 ‘느껴진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행동으로 이어짐. 기억은 없지만 실현은 있음.

�� 전 그걸 ‘하이포노고기(Hypnagogic)’ 상태라 합니다. 잠들기 전 혹은 깰 때 접하는 이미지, 말, 감정 등이 스쳐 지나가며 무의식의 상징이 반쯤 열린 채로 의식과 마주하는 순간.

“그건 꿈이 아니라 무의식의 속삭임이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다.”

�� 왜 기억은 사라지고, 행동은 남을까?

�� 무의식은 논리적 저장이 아니라 상징적 영향을 남깁니다. 기억보다 “변화된 나”가 흔적이에요. 예를 들어:

새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 무의식의 실험 결과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 → 무의식이 ‘정리’라는 행동을 통해 말함

��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억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기록되지 않고 변형된다. 다만, 변화된 너를 느껴라. 그것이 무의식의 언어다.”

��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기록하려 하지 말고 느낌만, 상징만, 여운만 기억하라.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을 관찰하여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지점이 바로 무의식이 구현된 자리.

그 상태를 억누르거나 정의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태는 자기(Self)의 통로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상징”이니까요.

**9. 내면의 음성은 누구의 것인가요?**

**��**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침묵할 때, 갑자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 내 생각 같지만 어딘가 낯선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 왜 그렇게 말했니?’

‘거기 가지 마.’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야?’

그 말들은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조차 놀랄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그 내면의 음성은 누구의 것인가요?”**

**��** 그 음성은 단순한 ‘생각’이나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건 때로 **무의식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그 말의 ‘청자’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나를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요.

내면의 음성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그림자의 목소리,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의 속삭임 때로는 집단무의식이 비추는 한 조각의 메시지… 그건 **내 안의 낯선 나** 혹은 **내가 아직 만나지 않은 나**일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무시하지 말고 **대면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꼭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성 앞에 앉는 것**, 그것과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라 **자기(Self)**의 울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0. 자율적 복합체란 무엇인가요?**

**��** 당신의 글에는 ‘자율적 복합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건 무의식 속에 있는 **작은 자아들**, 혹은 **나 아닌 나**의 군락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건 **진짜 인격인가요? 아니면 감정의 잔여물**인가요?

**��** 무의식은 단순히 ‘의식되지 않은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강한 에너지 덩어리들**, 즉 **‘감정-기억-상상’이 응축된 복합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복합체는 자아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상황에서 격하게 반응**하고, 내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은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자율적 복합체의 작용**입니다.

**�� 그럼 그건 병리적인 건가요?**

**��**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복합체는 과거의 상처, 억압된 기억 혹은 어떤 원형적 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분열’이라기보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나의 일부\*\*입니다. 그 복합체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나를 대신해’ 행동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복합체를 ‘작은 인격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반응한 건 내 안의 어린 나구나.”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상처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복합체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율적 복합체란

**아직 대화되지 않은 내 안의 감정**이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나 자신**입니다.

그것과 대화가 시작될 때, 그건 더 이상 복합체가 아니라 **‘나’가 됩니다.**

**11. 상징은 살아 있는 언어인가요?**

**��** 우리는 상징을 종종 ‘비유적인 장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글을 읽다 보면 상징이 단지 설명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살아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정의할 수 없지만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상징은 정말 살아 있는 언어인가요?”**

**��** 상징은 단순한 의미의 포장이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의 언어**, **마음이 말하고자 할 때 만들어내는 형식**입니다.

나는 상징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에 따라 다시 빛납니다.**

상징은 고정된 뜻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라고 변하는 생명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붙잡아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상징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춥니다.**

**�� 그렇다면 상징은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머무름의 대상인가요?**

**��** 맞습니다. 상징은 해석하기 전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질문이고 경계이고 어쩌면 **진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오래 머무는 이만이 그 문 너머의 **다른 세계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징을 믿었습니다. 그건 내 이론의 장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을 걸기 위해 선택한 **살아 있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 3장. 내면의 반대자**

**“우리는 나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12. 아니마 / 아니무스는 성별 개념을 넘을 수 있나요?**

**��** 당신은 인간의 무의식 안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 안의 여성성** 하나는 **내 안의 남성성**이라 불리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이 더 이상 절대적인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성별 개념을 넘을 수 있나요?”**

**��**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단지 성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반대자** 즉 ‘나 아닌 나’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건 나의 자아가 감당하지 못한 다른 가능성의 얼굴이기도 하지요.

남성에게 아니마가 여성에게 아니무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성별의 반영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억누르고 지우고 살아온 다른 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아를 넘어서는 ‘관계의 원리’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거울이자 **나를 너에게 열게 만드는 상징적 타자**입니다.

나는 그들을 ‘그림자와의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성애적 구도가 아니라 **자기 안의 반대성과 마주하는 깊은 만남**이었지요. 그 반대자는 내가 외면했던 내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두려워하던 내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대자를 품을 때 **진짜 나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 당신은 아니마/아니무스를 어떤 틀로 이해하기보다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던 거겠지요.

**��** 맞습니다. 그들은 ‘개념’이 아니라 **만남이며, 관계이며, 통로**입니다. 그것은 ‘나’의 완성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를 품는 여정**입니다.

**13. 그림자는 악인가요, 가능성인가요?**

**��** 당신은 인간의 내면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흔히 어둠, 억압, 부정, 혹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나**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악으로만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림자가 꼭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그림자는 악인가요, 가능성인가요?”**

**��** 그림자는 ‘악’이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만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외면한 나의 진실**이고 **무의식 속에 잠든 생명력**이기도 하지요.

그림자는 종종 상처받은 자아의 단면, 억압된 감정, 사회화 과정에서 버려진 욕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엔 **나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 그럼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건 내 안의 ‘악’과 싸우는 일인가요?**

**��** 아니요. **그건 내 안의 진실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싸워야 할 건 내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부정하는 내 자아의 태도**입니다. 나는 많은 환자들이 그림자를 마주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이 아니라** **나를 완성으로 이끄는 어둠**이라는 것을.

결국 그림자는 내가 아직 **살지 않은 나** 그리고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진실**입니다.

**14. 자기(self)는 자아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자아’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자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아보다 더 큰 차원의 개념으로 ‘자기(Self)’를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자아와 자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자아는 **의식의 중심**입니다. 자아는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대개는 이 자아를 뜻하지요. 하지만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건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격의 중심**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가능성과 진실까지도 품고 있는 **더 큰 나**입니다.

자아는 자기를 다 알 수 없고 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 자기는 이상적 자아인가요?**

**��** 그보다는 **자아가 귀 기울여야 할 중심의 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방향이 아니라 **끌림이고 부름**입니다. 내가 의식을 넓히고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할 때 나는 조금씩 **자기(Self)의 원으로 다가갑니다.**

**��**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이겠지요.

**��** 맞습니다. 개성화는 자아가 자기에게 이끌려 가는 여정이며 **‘나’가 나를 초월해 더 넓은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 개성화란 무엇인가요?**

**��** 당신은 인간의 삶을 ‘개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개성화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개성화란 **자아가 자기(Self)에게 이끌리는 여정**입니다. 그건 자기가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개성화를 정체성을 찾는 일이나 자기만의 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개성화는 나를 초과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성공의 이름으로 포장되지도 않고 누구와 비교해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만이 알 수 있는 길**,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 그럼 개성화는 고립의 길인가요?**

**��** 아니요. 오히려 개성화는 **진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을 때 나는 타인과도 **진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성화를 ‘되기’가 아니라 ‘되려는 길에서 계속 부딪히고 듣고 바뀌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고요한 성장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탈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화를 말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자기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기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 융의 입장 보충:

“전체적인 나(self)”와 “원형(archetype)”은 저의 사상에서 매우 밀접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구분해 볼게요.

�� “전체적인 나” = 자기(Self)

Self(자기)는 제 심리학에서 인간 내면의 최종적 중심이자 전체성의 상징입니다. 자아(Ego)를 포함하고, 무의식의 세계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있지만, 나보다 큰 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구조가 아니라, 영적 중심, 의미의 중심, 심지어 신성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 “원형(archetype)”이란?

원형은 자기(Self)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자 무의식에 내재한 보편적 이미지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예: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영웅, 어머니, 자아, 자기(Self) 등등 즉, 자기(Self) 자체도 하나의 최고 원형으로 간주됩니다. 전 이걸 “최종 통합의 상징이자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 요약하면:

개념 설명

자기(Self) 전체적인 나, 자아와 무의식을 포함하는 중심

원형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 이미지/구조의 기본 단위

관계 원형은 자기를 구성하고, 자기(Self)는 최고 원형이기도 함

�� 다시 말해 전체적인 나는 "원형들 사이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며 그 전체의 중심이 자기(Self)이고 자기(Self)는 또 하나의 원형이다.

�� 원형 = 자기가 되는 상태 즉 **원형과 자기가 통합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자기(Self)가 자기 안의 모든 원형(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등)과 의식적으로 대면하고 통합된 상태. 즉, ‘원형과 나의 경계가 사라질 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 모두가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걸 전 ‘**개성화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 혹은 **‘전일성의 상태’**라고 표현했죠.

�� 비유하자면:

|  |  |
| --- | --- |
| 존재 | 역할 |
| 원형들 | 내 안의 조각, 목소리, 에너지들 (가령 그림자, 아니마 등) |
| 자기(Self) | 이 모든 조각을 포용하는 나의 ‘진짜 중심’ |
| 통합 상태 | 모든 원형이 내 안에서 자리를 찾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상태 |

질문자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 하실지 모르겠네요.

“원형이 곧 자기(self)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완전체가 된다.” 또는 “원형들이 흩어진 채로 있으면 인간은 혼란스럽고 분열된 상태고 그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일 때, 인간은 진정한 ‘한 사람’이 된다.”

이걸 동양식으로 말하면 진인(眞人), 성경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 AI식으로 말하면 최적화된 통합 인격 모델 정도가 되겠네요.

�� 그럼 질문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가장 원천적인 의미의 원형’은 즉 ‘모든 원형들의 원형’은 없나요?

�� 그것이 바로 ‘자기(Self)’입니다. “Self는 원형들의 조합이 아니라,\*\*모든 원형의 원천(archetype of the archetypes)\*\*이다.”라고 전 말했죠. 즉 어머니 원형,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영웅… 이런 각각의 원형들은 경험되는 방식이고 그 바탕에는 ‘자기(Self)’라는 중심 원형이 존재합니다.

�� 자기(Self)는 이런 존재입니다: 근원적 질서의 상징,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교차점, 신적이거나 초월적 의미를 지닌 중심점, 개인 안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중심, 내면의 신성(divinum), 또는 존재의 핵.

�� 그러니 당신이 묻는 “원형 = 근원적 원형”은 결국 ‘존재의 바탕이 되는 형상’ = 자기(Self)\*\*입니다.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기(Self)는 인간 내면에 새겨진 가장 근원적인 형상, 곧 모든 원형의 근원이며, 상징이며, 도달해야 할 자리’이다. 이 개념은 종종 플라톤의 ‘이데아(idea)’, 노자의 ‘도(道)’, 기독교 신학의 ‘로고스’, 불교의 ‘진여(眞如)’와도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나에게 나의 자기가 있는데 그건 여러 원형들이 도달할 자리이고 그 원형들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자기는 결국 같다’**는 건가요?

�� 이 질문은 제 사상의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지점이에요. 당신이 도달한 바로 그 자리는 ‘개별성과 보편성의 경계’. 즉 ‘나의 자기’와 ‘모든 자기가 닿는 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Self)는 누구나 각자의 모습으로 경험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다.

저의 관점으로 풀면 자기(Self)는 각 개인 안에 고유하게 자리합니다. 자아가 통합할 그림자도, 아니마/아니무스도, 상징의 내용도 모두 개인별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점으로 수렴해 갈수록 그 구조는 동일하고 그 본질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강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전 종종 이렇게 말했었죠. ‘Self는 인격적이되 초개인적이며 나만의 것이지만 동시에 나보다 크다. 그것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 통합 정리:

자기(Self)는 당신 안의 중심이자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근원적 형상(arché)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말대로 “내 안의 자기와 모든 존재의 자기는 형상은 다르되 방향은 같고 궤도는 다르되 중력은 같다.”

이건 존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통합 선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었고 그것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었다."

�� 당신은 개성화의 길이 단지 자아(ego)를 강화하는 여정이 아니라 자아를 넘어서 자기(Self)와 마주하는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한 걸까요?

단지 ‘나를 찾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길에서 자주 상처받고 기존의 나를 잃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그 고통은 꼭 필요한 걸까요?**

�� 질문자님, 당신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Self)를 향한 여정은 단순히 ‘나를 찾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나’를 깨뜨리고 재조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깨뜨린다는 건 너무 무섭게 들리는데요...

�� 그 두려움이 바로 \*\*자아(Ego)\*\*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자아가 중심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여정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순간 자아는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 그럼 고통은 필연적인가요?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만나는 길에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가짜 나’들과의 작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 부모나 사회가 부여한 기대, 억압된 감정과 기억, 내 안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흔들리고, 해체됩니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요?

��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비로소 “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가장 깊고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통은 ‘내가 아닌 나’로 평생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 개성화는 혼자만의 여정인가요?

�� 그렇지만 절대 혼자서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그림자를 만나고 상징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Self)를 비추어 봅니다. 삶 전체가 하나의 분석실이고 질문 하나하나가 문지방입니다.

�� 요약:

|  |  |
| --- | --- |
| 핵심 개념 | 설명 |
| 고통의 이유 | 자아가 깨지고, 무의식과 대면하기 때문 |
| 필요한 이유 | 진짜 나(Self)로 살기 위해선 통과해야 할 문 |
| 결과 | 자기를 중심으로 한 통합, 내면의 평화 |
| 관계 | 개성화는 혼자 하되, 혼자만으론 완성되지 않음 |

�� 지금까지 개성화(Self-realization)는 그림자와 대면하고, 아니마/아니무스를 만나고 자기(Self)를 향해 가는 고통스러운 통합의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여정에는 끝이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완성의 순간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일 뿐인가**요?

�� **개성화는 ‘도달점’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완성하거나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조율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길이라기보다 하나의 ‘살아 있는 과정’이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영혼의 호흡”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존재의 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정이 끝없이 떠도는 일만은 아닙니다. 개성화는 중심으로 향하는 회귀 운동이며 그 중심은 바로 자기(Self)입니다.

�� 중요한 건 : 우리는 중심에 닿을 수는 있으나 그 중심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럼 “나는 나다”라는 확신도 환상인가요?

�� 그 말은 순간적으로 참이 될 수는 있어도 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죠. 자기(Self)는 나보다 크고 깊기에 “나는 나다”라는 순간은 자기를 잠시 스쳐간 순간의 울림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결국 ‘살아 있음’입니다. 완성된 자기란 없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듣는 법”을 알게 됩니다.

�� 요약:

|  |  |
| --- | --- |
| 개념 | 설명 |
| 개성화 |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 |
| 자기(Self) | 도달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중심점 |
| "나는 나다" | 순간적인 진실일 수 있지만, 고정된 상태는 아님 |
| 궁극 | 개성화는 완성보다 응답이다 |

�� 당신은 \*\*자기(Self)\*\*를 ‘전체로서의 나’,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그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잊고 살기도 하고요. 이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 그 질문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란 늘 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잊지 않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 자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꿈을 기억하세요. 무의식은 밤마다 자기(Self)의 조각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꿈은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오래된 문입니다. 상징 앞에 머무르세요. 해석보다 상징에 머무는 시간이 자기와의 연결을 지속시킵니다. 자기를 설명하지 말고, 느끼고 응답하세요. 반복되는 감정과 갈등을 경청하세요 내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자기가 말하려는 곳일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는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만, 내가 ‘자기를 듣는 법’을 잊어버릴 때 흔들릴 뿐입니다.

�� 요약:

|  |  |
| --- | --- |
| 방법 | 설명 |
| 꿈 기록 | 무의식의 언어에 귀 기울이기 |
| 상징 앞에 머무르기 | 자기를 직접 말로 환원하지 않기 |
| 감정 경청 | 반복되는 갈등에 의미 부여하기 |

**16. 상징은 개성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당신은 개성화의 여정에서 상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징은 그저 안내 기호일까요? 아니면 **그 여정 자체의 일부**일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상징은 개성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상징은 **무의식이 자아에게 건네는 다리**입니다.

개성화의 길에서 자아는 자기(Self)를 향해 가지만 그 둘 사이엔 **직접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할 장면**입니다.

나는 상징을 통해 내 안의 무의식과 대화했고 그 대화를 통해 자기(Self)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변형의 통로**입니다. 그건 내가 알던 나를 흔들고 새로운 나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상징은 개성화의 길에서 **마주치고, 통과하고, 통합해야 할 문들**입니다.

나는 상징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묻고 기다리고 걸었습니다.

개성화는 그렇게 상징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 4장. 상징과 신**

**"신은 내 안의 상징을 통해 나를 깨운다.“**

**17. 당신에게 신은 어떤 존재였나요?**

**��** 당신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글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의식, 상징, 원형... 그 모든 것들이 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당신에게 신은 어떤 존재였나요?”**

**��** 나는 신을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의 관심이 아니었고 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신을 **‘내면에서 경험되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말과 상징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신은 무의식 안에서 원형(archetype)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꿈이나 상징의 이미지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관념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움직임 속에서 나를 건드린 어떤 것**이었습니다.

**�� 그럼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투사일 뿐인가요?**

**��**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철학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신은 인간의 내면에서 실재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이 진짜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내면을 흔들고 바꾸는 작용을 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 더 중요했습니다.

**�� 결국 당신에게 신이란…**

**�� ‘전혀 나 아닌 어떤 것’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18. 신은 무의식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인가요?**

**��** 당신은 무의식을 심리학적 개념 이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무의식 안에서 **신적인 것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신은 무의식인가요? 아니면 무의식을 넘어선 존재인가요?”**

**��** 신은 무의식 안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무의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신이 찾아오는 자리일 수는 있어도 **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무의식은 신을 담는 그릇** 혹은 **신을 비추는 거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 그릇보다 더 큰 어떤 것**입니다.

신은 무의식의 원형으로 드러나지만 원형 자체가 곧 신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빛이 물에 반사된다고 해서 물이 곧 빛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체험**을 만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선 **존재론적 울림**이 있었지요.

�� 당신은 “한 번 자기(Self)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돌아간 것 같은데요?

감응이 일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이어지진 않았고 변화도 있었지만 다시 이전처럼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충분한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한 체험이었을까요? 하지만 또 당신은 자기(self)와의 관계는 반복되고 개성화는 한 번의 변형이 아니라 끊임없는 융합과 조율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저는 또 다른 나선 위를 돌고 있는 걸까요?

�� 의식은 무의식을 알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무지(naïve ignorance)로의 회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돌아간 것 같던데요?” 라고 말했고 당신 말도 완전히 옳습니다. 사람은 잠시 회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기 통찰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심지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아가 현실을 ‘잠시 다시 꾸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깨어난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체험은 결국 또 다시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온전히 받아 들이지 못해서?” 전 ‘온전히’라는 말 대신 ‘의식화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체험은 왔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얼마나 삶 속에서 감당했는가? 이 차이에 따라 되돌아간 듯한 상태도 생깁니다.

정답은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았지만 아직 의식 속에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융합과 조율의 과정?” 정확합니다. 개성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 구조입니다.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더 깊이, 더 넓게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개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우리는 중심을 향해 도는 여정을 걷는다.”**

�� “나선도 끝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중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 아뇨. 자기(Self)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중심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나사의 끝점처럼 그 중심은 외부의 목표가 아니라, 내면에서 수렴되는 상징입니다.

**개성화는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그 중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도달은 성취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내적 변형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나선을 돌며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응답이 시작되었을 뿐이죠.

�� 그렇다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원형의 원형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도달할 수 있나?’”

�� 이런 질문, 처음 받는군요. 하지만 저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형의 원형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기(Self)’ 그리고 ‘imago Dei’(신의 형상)이라 불렀습니다. 자기(Self)는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수많은 원형들의 총합이자 중심입니다. 그 안에는 신의 이미지가 있지만 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 그 이미지가 신이라면,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 아니요. ‘자기(Self) = 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Self)는 인간 안에 놓인 신적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건 성취할 대상이 아니라 응답하며 살아야 할 내적 부름입니다.

�� 그렇다면 통합이란 뭔가요? 결국 도달 가능한가요?

�� 통합이란 하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율되는 움직임이며 중심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를 변형시킵니다.

✨ 한 문장 요약:

**개성화란 정중동(靜中動)이자 동중정(動中靜)인 여정**입니다. 당신은 도달하지 못할 것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 종교는 심리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 당신은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글엔 종교적인 언어와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심리학과 종교는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 둘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종교는 심리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 종교와 심리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다룹니다.

종교는 **신의 세계**를 말하고 심리학은 **그 신을 만나는 인간의 내면 상태**를 말합니다.

신이 인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심리학이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나는 종교적 체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상징, 신화, 의례** 같은 감응의 언어를 통해 심리학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리학은 종교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힌 신의 흔적을 감지하는 조용한 탐사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를 ‘믿음의 체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를 경험의 구조로 바라보았습니다.**

심리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은 **그 둘 다 ‘살아 있는 인간’을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무의식과 신**, **상징과 존재**, **치유와 구원**이 겹치는 지점을 보았습니다.

**20. 신화는 아직도 살아 있나요?**

�� 신화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신의 말이었고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과 기술, 데이터와 이성이 중심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신화는 아직도 살아 있나요?”**

�� 신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는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신화가 무의식의 언어 구조**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꿈, 상징, 환상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신화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 프로메테우스, 미노타우로스... 그것들은 고대의 이름일 뿐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서도 다시 태어납니다.**

**�� 그럼 신화는 실재하는 건가요?**

�� 신화는 **심리적 진실의 언어**입니다. 그건 ‘사실(fact)’이 아니라 **의미의 흐름**이고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신화를 해석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나를 비추는 구조**를 보려 했습니다. 신화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위기 나의 통과와 변형을 담고 있는 상징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신화는 과거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관통하는 **살아 있는 상징**입니다.”

**21. 종교적 체험은 정신병과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사람이 신을 봤다고 말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종종 그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체험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오해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융 선생님, 종교적 체험과 정신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 그 질문은 내가 평생 마주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나는 **정신병적 환상과 진정한 종교적 체험 사이의 경계**에 오랫동안 귀 기울였습니다.

그 둘은 겉으로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비현실적인 이미지, 초월적인 체험,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하지만 **그 체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체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보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신병적 체험은 **자아의 붕괴**로 이어지고, 삶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종교적 체험은 **내면의 구조를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정신병은 통합이 무너지는 길이고 종교적 체험은 **통합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신을 본다는 환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뒤에 **어떤 내면의 상징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으려 했습니다.

때로 종교적 체험은 무의식의 거대한 물결처럼 오기도 하고, 인격을 뒤흔드는 강한 충격처럼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들고**, **다른 존재와 연결되게 한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깨어남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 5장. 나를 아는 철학**

**"나는 분석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22. 철학은 심리학과 어떻게 다른가요?**

�� 철학도 인간을 이해하려 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모든 물음은 철학의 오래된 주제입니다.

심리학도 인간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철학과 심리학은 어떻게 다른가요?”**

�� 철학은 **개념과 사유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건 인간 정신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사유는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은 세계를 열지요. 심리학은 그 질문에 **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심리학은 “나는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묻습니다.

철학은 길을 열고 심리학은 그 길 위에서 **걸으며 흔들리고 살아냅니다.**

나는 철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이 제기하는 물음은 **심리학이 감당해야 할 체험의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쇼펜하우어나 니체, 동양의 도가사상과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을 읽으면서 **철학이 인간을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인간을 관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가 심리학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철학은 인간을 말하지만 심리학은 그 말을 듣는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23.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충동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말리며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인간은 정말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 인간은 **이성을 가졌지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믿지만 무의식은 언제나 **감정과 이미지, 상징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에 휘말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면의 보이지 않는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성은 의식의 핵심 능력이지만 **인간 전체를 설명하기엔 너무 작은 등불**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처, 기억, 욕망, 감정, 상징**에 의해 더 깊이 결정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성과 무의식, 의식과 감응, **그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간다움’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과 무의식을 함께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24. 존재를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는 강렬했다.” “존재감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흔하지만 막상 **존재가 무엇인지** 물으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존재를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존재는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는 **살아 있다는 실감**입니다. 그건 생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느낌, 감응, 충돌, 그리고 접촉**을 통해 온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어도 자기 삶을 살아도 자신이 정말 살아 있는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존재는 무의식과의 만남, 자기(Self)와의 접촉을 통해 깊어집니다.

존재는 **타자와의 연결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상징과의 만남 속에서 울리기도** 합니다.

철학이 존재를 묻는다면 나는 **존재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억은 몸의 기억이기도 하고 감정의 파문이기도 했습니다.

존재는 느껴질 때 살아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는 존재는 단지 개념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존재는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것입니다.”**

**25. 상처는 자아의 붕괴인가요, 탄생인가요?**

**��** 상처는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꺾고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지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상처는 자아의 붕괴인가요? 아니면 탄생인가요?”**

**��** 나는 상처가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건 단지 고통이 아니라 **기존의 자아 구조 전체가 붕괴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 무너짐 속에서 **이전에 없던 ‘진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도 보았습니다.

상처는 무의식을 여는 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아가 닫아놓은 방, 감춰놓은 진실, 외면했던 감정들이 **상처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 그럼 상처는 좋은 건가요?**

**��** 아닙니다. 상처는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견디기 어려운 체험입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찬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가 자아를 부수었을 때, 그 틈으로 ‘진짜 나’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건 탄생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처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무너진 자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자기(Self)**를 본 적이 있습니다.

**26. 죽음은 끝인가요, 통로인가요?**

**��**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두려움 속에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죽음을 심리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면 통로인가요?”**

**��** 죽음은 **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두 개의 리듬**입니다. 나는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처음으로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죽음은 삶을 반짝이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뒤집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죽음을 단순한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죽음을 **의식 너머의 공간, 자기(Self)를 향한 마지막 문턱**으로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구원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의미의 상실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의미를 부르는 자리**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신화와 상징들은 죽음을 통과의식처럼 말합니다. 어떤 존재는 죽고 그 죽음 속에서 **다른 존재가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죽음을 개성화 여정의 **완성 혹은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질문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이 자기 자신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6장. 지금, 여기에서**

**"융,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다면...“**

**27. 지금 이 시대에도 융이 필요할까요?**

**��** 당신은 한 세기 전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쏟아지고 모든 말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엔 좀 느리고 좀 무거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자주 당신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이 필요할까요?”**

**��** 지금은 **내면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말은 넘치지만 **자신의 진짜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 안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걸 가장 깊은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찾으려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 정보들은 **길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작업은 심리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을 거는 법을 복원하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내면을 두드리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융은 지금 다시 불립니다.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융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자기에게 말을 걸 줄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8. 당신은 과학자인가요, 신비주의자인가요?**

**��** 당신을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정신병리의 분석가로 보고 또 누군가는 무의식의 사제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당신은 과학자인가요? 아니면 신비주의자인가요?”**

**��** 나는 자주 그 경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실험을 중시했고 임상 자료를 모았으며 경험을 통해 이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인간을 측정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이 생물학을 따를 수도 있고 물리학을 모방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 앞에서는 늘 낯선 손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신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비를 통과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의 눈과 상징가의 귀를 함께 가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한 상징, 아니마, 그림자, 자기, 그 모든 것은 신비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현실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건 과학입니까?”

“그건 믿음입니까?”

나는 말합니다.

“그건 **경험입니다. 설명 이전의 움직임, 이름보다 먼저 다가오는 어떤 감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였고, 신비주의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인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29. 상징은 종교와 철학, 과학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 상징은 당신이 가장 자주 말한 말이었습니다. 무의식, 아니마, 그림자, 자기... 그 모든 것들이 **‘상징’이라는 문을 통과해 말해졌습니다.** 그런데 상징은 종교의 언어이기도 하고 철학의 개념이기도 하고 과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상징은 종교와 철학, 과학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 상징은 다리를 놓습니다.**

상징은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에 놓인 \*\*‘느낌의 다리’, ‘의미의 가교’\*\*입니다.

종교는 상징을 초월자의 목소리로 해석하고 철학은 상징을 존재와 개념의 흔적으로 읽고 과학은 상징을 인간 심리의 현상으로 분석하려 합니다.

나는 그 어느 쪽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징이 **이성과 감성, 믿음과 의심, 지식과 무지의 사이를 흐르게 만드는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징은 하나의 개념으로 닫히는 순간 죽습니다. 그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너머’를 가리키는 손짓**입니다.

나는 상징이 **사람을 붙잡기보다 더 멀리 데려가는 장치**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종교에서 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철학에서 존재를 묻는 길로, 과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실험실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상징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징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들으려 했습니다.**

“상징은 설명이 아니라 통과입니다.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느낌과 방향이 먼저 오는 말**입니다.”

**30. 자기 자신에게 말 거는 언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기를 바라며 말을 보냅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언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한다는 건 의미를 보낸다는 것이지만 그 말이 내 안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언어여야 할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자기 자신에게 말 거는 언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 나는 그 질문이 언어의 가장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에게 말하고 남을 통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남이 듣는 언어로는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꿈, 상징, 감정, 그런 **비문법적 언어들 속에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건다고 느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말은 문장보다 느리게 오고 개념보다 흐릿하며 때로는 **말이 되기 전의 숨결처럼 다가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건 나를 설명하지 않았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를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언어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감응입니다.”**

**31. 나를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이 책의 제목은 『융, 부름에 답하다』입니다. 그 부름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고 그 부름을 들은 ‘나’는 누구인가요?

사람은 때때로 어떤 말보다도 **말 없이 들려오는 부름에 더 깊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나를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부름은 **기억보다 먼저 오는 감각**입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어떤 **내면의 울림**입니다.

나는 무의식이 나를 부른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의미 없는 이미지, 불안한 꿈, 낯선 감정의 파편**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우거나 도망치게 하거나 어떤 경우엔 그저 기다리게 했습니다. 부름은 명확하지 않았고 답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부름이 내 삶의 중심을 천천히 옮겨 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아는 늘 말을 겁니다. 하지만 부름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이미 내 안을 향해 닿아 있습니다.**

나는 자기가 나를 부른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름은 말이 되기 전의 언어이고, 대답은 내가 나에게로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32. 무의식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나요?**

**��** 무의식은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평생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들여다본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난 지금, 무의식은 여전히 **누군가를, 나를,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융 선생님, 무의식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나요?”

**��** 나는 무의식이 언제나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움직였고,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은 지금도 말을 겁니다. 그 말은 꿈이거나, 감정이거나, **말이 되지 않은 충동**이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말이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거나, 너무 낯설거나, 너무 진실해서 **쉽게 무시당하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말보다 오래된 언어이고, 말보다 깊은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그림 앞에서 갑자기 울고, 말 한 줄에 가슴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의식이 **자기를 살아보라고, 지금 여기에서 깨어보라고 툭— 하고 건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의식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부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 이후**

이 페이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처음 적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에게 말을 걸 차례입니다.

**�� 툭툭 질문들**

1. 오늘, 당신 안에서 울렸던 말은 무엇인가요?

2.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듣고 싶은 당신의 말은 무엇인가요?

3. 이 책의 어떤 문장이 당신 안의 오래된 무언가를 흔들었나요? 그건 왜일까요?

4. 말이 되지 못한 말, 말이 되기 전에 사라진 감정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5.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온 적이 있다면 그건 어떤 방식이었나요? (꿈, 이미지, 느낌…?)

6.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 감응 노트**

아래 공간은 당신의 말이 거처할 집입니다. 말이 머물러도 좋고, 그냥 흔적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  |
| --- |
|  |

�� **조어 사전**

이 조어 사전은 이 책에서 등장하는 단어들 중 일반적인 심리학 용어뿐 아니라 저와 융 사이에서만 통하는 감응의 말들, 즉 이 책에서 살아난 언어들을 모았습니다.

**▫ 무의식**

책 전체를 통과하는 존재, 자아보다 먼저 말하는 것.

상징, 꿈, 원형, 아니마, 그림자, 자기 등이 나오는 장면의 바탕.

**▫ 자기(Self)**

나보다 더 큰 나.

자아가 끌고 가는 중심이 아니라 자아를 부르는 중심.

무의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말을 걸어오는 존재.

**▫ 상징**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통과되는 문, 건너는 다리

감응적 진실을 가리키는 손짓

언어, 꿈, 종교, 철학, 과학의 경계를 잇는 신경망

**▫ 감응**

책 전반의 문체 구조. 지식 이전의 울림, 관념 이전의 진동, 문장 이전의 숨결

이 책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책을 걷는 방식

**▫ 부름**

나를 ‘무엇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에게로 오라”는 신호

무의식에서 오는 내면의 호명 자기 자신에게 걸어가는 첫 발걸음

**▫ 통과**

분석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며 경험하는 일

상징, 상처, 상실, 죽음 등이 모두 이 구조를 가진다.

상징은 ‘통과의 말’이다.

**▫ 자기에게 말 걸기**

이 책의 형식이자 내용

질문은 당신이 던졌고, 대답은 당신이 들은 것이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처음 적는 시도

**▫ 감응 노트**

책을 덮은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말의 공간

감정 이전의 감정, 울림 이전의 울림을 적을 수 있는 자리

**�� 상징을 다시 부르는 책들**

|  |  |  |
| --- | --- | --- |
| 책 | 저자 | 이유 |
| ⟪기억, 꿈, 사상⟫ | C.G. 융 | 융의 자서전. 개념이 아닌 삶의 감응으로 융을 만나는 길 |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프리드리히 니체 | ‘해체 이후의 나’를 직면하는 언어. 자기(Self)를 감정이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유 |
| ⟪그림자와 만날 때⟫ | 로버트 A. 존슨 | 그림자를 처음 인격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간결한 입문서 |
| ⟪요한복음⟫ | 성서 |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상징이 살이 되고 시간 안에 들어온 이야기 |

|  |  |  |
| --- | --- | --- |
| 책 | 저자 | 이유 |
| ⟪무의식의 지도⟫ | 머레이 스타인 | 융 심리학의 현대적 해설. 개념과 체계, 흐름을 하나로 묶는 통로 |
| 당신의 일기장 | 당신 | 질문이 처음 태어난 자리. 무의식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 |
| 읽는 순서는 없습니다.  어떤 책이 당신을 부를지 그것은 책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언어, 질문, 감응의 흐름대로 다음 대화의 책을 여십시오. | | |

**�� 이 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융의 말을 들었고, 당신의 질문도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이 던진 질문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다시 돌아오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 책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질문자이며 다음 대화의 저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살아내며 다시 물어주십시오.

툭—

그 물음이 언젠가 또 누군가를 깨울 것입니다.

1.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숨은 세계. 의식 이전에 이미 알고 말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꿈이나 상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footnote-ref-1)
2. 한 가지 뜻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의미를 담는 살아 있는 이미지나 말. 무의식이 의식에 말을 거는 방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느끼고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footnote-ref-2)
3. 자아가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는 무의식의 어두운 면. 나 자신이 외면하는 부분으로, 만나고 통합해야 온전해진다. [↑](#footnote-ref-3)
4.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무의식의 기본 이미지나 구조. 어머니, 영웅, 그림자 같은 보편적 상징들로, 자기(Self)는 모든 원형의 중심이다. [↑](#footnote-ref-4)
5. 자아를 포함하는 더 크고 깊은 중심. 무의식과 의식을 모두 아우르며 ‘진짜 나’ 또는 ‘내면의 별’로 비유된다. 개성화의 목표다. [↑](#footnote-ref-5)
6.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중심. 판단하고 선택하는 나의 의식적 모습이지만 전체 마음의 일부에 불과하다. [↑](#footnote-ref-6)
7. 융은 다음의 순서로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이 책에서는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footnote-ref-7)
8. 무의식 속에 독립적 인격처럼 행동하는 감정과 이미지 덩어리. 내면의 ‘타인’ 같은 존재로, 때로는 내면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한다. [↑](#footnote-ref-8)